

“책임정당 정치 구현...정권재창출 이뤄내겠다”

② 홍영표 의원

대담·정리·최권일 정치부 부장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에 나선 홍영표(4선·인천 부평구을) 의원은 18일 “재보궐 선거 패배를 단기적으로 질서있게 수습하고, 단결과 책임의 리더십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함께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 대표가 되면 바로 뛰면서 당내 소통은 물론 현장의 민심을 들으면서 새롭고 깊은 혁신이 나설 것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정치의 역할, 당의 역할을 국정의 중심에 세우고 책임 정당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국정 운영의 틀을 정부에 맡긴 것부터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출신인 홍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킨 데 큰 기여를 하면서 광주와 맺은 인연이 크다. 그는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에 ‘광주형 일자리’를 포함시키며 이 사업의 초석을 놓았고,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인 노사민정 협의체가 뼈저거릴 때마다 광주를 찾아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그동안 호남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온 것은 호남이 민주당의 뿌리이자 정신이라는 점 때문”이라면서 “담대한 진보정신을 일관되게 지켜온 호남의 정신이 지금 우리 당에 가장 필요한 자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호남이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의 빛이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재보선 참패로 당 쇄신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당 대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당 대표로 나서는 각오는.

-재보선 패배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라는 환경에서 저희 당은 분란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때 당 대표에게는 위기 돌파와 단결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차기 당 대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당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당이 승리할 수 있는 공정한 대선 경선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역대 정부 모두 어려움을 겪었던 임기 말 당정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협치의 리더십도 필요하다. 여기에 덧붙여 다시 확산세에 들어선 코로나 위기 극복 등 현안 과제를 정부가 완수할 수 있도록 당이 튼튼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당내 최대 혁신 과제는.

-가장 중요한 혁신은 당을 국정의 중심에 세우는 것이다. 정치의 역할은 국정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 정부는 집행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 정치(정당 정치)는 방향 결정과 정책 기획을 그동안 방기해왔다. 국정 운영의 큰 틀을 정부(기재부)에 맡겨 두고 여당은 뒷바라지, 야당은 이를 전면 거부하는 양상이 이어져 왔다. 이제는 정당이 중심이 되는 책임 정당 정치를 구현 하는 것이 혁신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대선

정권말 위기 단결 리더십 필요
이제 당이 국정 전면에 나서야
민생과 개혁은 함께가야 성공
부동산·일자리 과감한 개혁

군공항 이전 등 끝까지 쟁길 것
광주형일자리 성공 매우 중요
호남이 당 혁신의 빛 되어 달라

경선도 당이 중심이 돼 치러야 한다. 후보의 사조직(핑크뱅크)이 아닌 당이 주요 대선공약과 정책을 입안하고 당론화해야 한다. 또한, 정치의 다양한 의견을 용광로처럼 모으는 역할이기 때문에 당내 소통과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들이 발로 뛰어 현장의 민심을 듣도록 소통 채널도 강화하겠다.

▲최근 당내 초선 의원들이 당 혁신 등 다양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당내 초선의원들이 반성과 성찰의 태도를 보이며,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 이는 우리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더 잘해야 한다는 당 전체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검찰개혁 등 새로운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과의 소통 창구도 더욱 넓혀나가겠다.

▲당내 친문 강경파와 친문 당원들이 너무 개혁 입법에만 몰두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이반이 나왔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

-민생이나, 개혁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과 개혁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문재인 케어, 코로나 방역, 재난지원금, 전 국민 고용보험 등 문재인 정부는 민생에서 눈 돌린 적이 없다.

다만,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걸맞은 유능한 개혁을 보여주지 못했고 검찰개혁 과정에서 윤 총장과 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민생에 소홀한 것처럼 비춰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보궐 투표 결과가 개혁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홍영표 의원이 18일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경선에 나서 는 각오를 밝히고 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약력

▲전북 고창 출생(63) ▲동국대학교 졸업 ▲18·19·20·21대 국회의원(4선) ▲(전)노무현 정부 국무총리실 시민사회 비서관 ▲(전)

제18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 ▲(전)제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일자리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 상임위원장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과 소통하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일의 우선 순위의 경중을 잘 따져 유능하게 처리하라는 충고라고 생각한다.

또한, 친문과 비문 식의 편 가르기는 분열을 노리는 언론의 프레임이 아닌가 싶다. 작년 총선에서 모두가 대통령 국정예를 힘을 싣겠다고 입을 모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금 민주당은 모두 함께 문재인 정부를 만들고, 정책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반성이자 보답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후보와 차별화 되는 자신만의 장점은.

-위기 국면에서는 위기 해결 능력이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고, 국회의 역할이다. 원내대표 시절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5법을 처리하고,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을 성공시켰다. 참여정부에서는 이해한 총리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일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경주방사성폐기물장 선정, 한미 FTA 등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했다. 치밀한 전략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리더십, 설득과 협상의 능력, 맡은 일을 반드시 완수하는 책임감의 면에서 제가 적임자라 자신한다.

▲가장 강조하는 공약은. 그리고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 일자리본부장으로서 지난 몇 년간 제가 광주·전남 지역을 위해 부단히 애썼던 것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바로 일자리이기 때문이었다. 청년들이 더 이상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도록 잘

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 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도 중요한 과제다. 광주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도약하려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전남의 현안사업인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흑산공항 연내 착공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호남 발전을 위해 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지자체에만 의존한 현재의 군 공항 이전 사업 방식은 광주와 전남 간의 지역감등만 야기시킬 뿐이다. 국회 국방위에서 중앙 정부 차원의 범정부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세균 전 총리가 정부 협의체를 만들어 이전 문제 해결을 조정·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부가 조율에 나선만큼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되며, 국회 국방위에서 끝까지 쟁겨 나갈 것이다.

▲광주형일자리에 많은 지원과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광주형일자리 방향 발전 방향은?

-상생형 일자리는 소멸 위기를 겪을 만큼 어려운 지방의 일자리를 지키고, 4차산업 혁명의 파고에 맞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모델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인 상생형 일자리는 대부분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본 받고 있어 광주의 성공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광주형 모델을 성공시켜 상생형 일자리를 확산시키고, 지역균형 뉴딜 정책의 한 축으로 삼을 것이다.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특화된 아이디어와 강점을 활용한 발전 모델을 주도적으로 제시한다면 중앙이 뒷받침해나갈 것이다.

▲당 대표가 된다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생각인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이어받을 것이다. 대선 경선은 시스템에 입각한 공정한 경선을 치러내겠다. 능력과 도덕성, 대중성 등 많은 기준을 거쳐 대선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후보가 합의하지 않는 불변은 없다’는 원칙도 지킬 것이다. 대선 경선도 당이 중심이 되어 치를 것이다. 후보 사조직인 나설 것이 아니라 당이 대선 공약과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당론화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과 일자리 분야에서는 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반도 평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일자리 구조 재편, 대기업·공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의 인구소멸 방지 등 우리 사회가 처한 주요한 과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다.

▲지역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고비마다 광주와 호남이 있었다. 광주의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진로가 바뀌었다. 작은 섬마을을 소년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노무현 바람(노풍)을 만든 것도 모두 광주의 선택이었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도 광주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 후보, 다음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셨으면 한다. /cki@kwangju.co.kr



"도시가스 냉방으로 에너지 다이어트 하세요!"

응차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한국에너지공단)

투자비 지원
가스냉방설비설치장려금
(한국가스공사)

해양에너지
*해양에너지 GHP보급 대수(실외기)

년도	대수
2015년	26
2016년	60
2017년	94
2018년	6
2019년	21
2020년	56
누적	263

사용은 전기 시스템 에어컨과 동일
(가스엔진으로 압축기를 가동)

**에너지요금 절감(30%~α)
수전용량 축소(전기제품의 1/10)**

250㎡(80평)이상: 종교시설, 산업체, 의료시설 등

주)설치 대상, 용량 및 운전패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 1544-1115 / www.hyenergy.co.kr "해양에너지 SNS를 구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